

팍팍한 삶이 부른 세태...서민들은 괴로워!

피해 늘어나는 켓돈 사기

광주 남부·광산경찰 등
고소장 접수 잇따라

계주, 여러개 모임 운영
추가 피해 조사 착수



40대 여성 계주(契主)의 자살 시도 사건(광주일보 2월 24일자 6면)과 관련, 해당 계주에게 켓돈을 떼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각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하는 피해자들이 잇따르는데다, 수백만원의 돈을 떼었다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아 서민 피해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에 대출 문턱마저 높아 복돈 마련이 쉽지 않은 서민들이 주로 계 모임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광주광산경찰은 박모(여·46)씨가 지난 28일께 계주 장모(여·47)씨에게 켓돈 등 2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추가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장씨가 매일 50만 원씩 열 차례 부으면 순번에 500만 원 가량의 켓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에 들었지만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이의 장씨에게 1500만 원가량 돈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했다.

남부경찰도 지난달 28일 장씨로부터 켓돈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이모(여·43)씨와 백모(여·44)씨 등 2명은 각각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매일 125만원씩 여섯 번 켓돈(750만 원씩)을 부었는데, 켓돈을 받지 못했다”고 썼다.

경찰은 최근 켓돈 사기가 자주 일어나는 데 대해 은행 적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챙길 수 있고 당장 목돈이 필요한 사람에겐 답보 없이 쉽게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점 때문에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매일 30만~300만 원씩 부으면 원하는 순번에 300만~3000만 원의 켓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개의 모임을 운영했다는 고소인들의 진술의 일관성에 주목,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그러나 계주 장씨가 지난달 10일 자신의 집에서 자살을 시도한 직후 광주 모 병원에서 치료중이라 피해 규모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계는 은행 예금처럼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계에 가입할 때는 계주와 계원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물고 물리는 콩나물 절도

식당앞에 놓아둔 배달통
다른 유통업자가 훔쳐
“나도 피해자” 선처 호소
업계 과열경쟁에 근절 안돼



4만원짜리 콩나물 통을 둘러싼 유통업자들의 물고 물리는 ‘절도’ 행각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팍팍한 살림살이에 지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나는 생존 경쟁이 쓸쓸하다.

광주 광산경찰은 3일 광주시 광산구 A아귀점 식당 앞에 놓아둔 콩나물통을 훔친 유통업자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5일 새벽 5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A아귀점 식당 앞에 다른 콩나물 유통업자 박모(47)씨가 놓아둔 시가 8만원 상당 콩나물통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같은 날 새벽 5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식당에서 또다른 콩나물유통업자인 피해자 박모(49)씨가 놓아둔 16만원짜리 콩나물통 4개를 훔친 혐의도 받

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나도 피해자”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김씨 자신도 10여년간 콩나물통을 배달하면서 분실한 것만 40개가 넘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피해는 콩나물 유통업체만 35개에 이르면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현상으로, 콩나물을 음식에 넣어 요리하는 광주지역 아귀점, 국밥집 업자들 사이에서는 콩나물통 절도는 아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에서 10년간 콩나물국밥집을 운영한 A씨는 “하루 평균 콩나물 3통을 쓰는데 지난주에도 콩나물통 2개가 사라졌다”면서 “콩나물배달업자들이 서로 가져간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피해를 보는 식당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어

려움을 호소했다.

식당업자들은 유통업체들이 문을 열기 전 가게 앞에 콩나물을 놓고 가는데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훔쳐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진술했다.

양측 모두가 피해자인 서민들의 물고 물리는 생계형 절도가 끊어질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동구 공동에서 30년간 아귀점진 문점을 운영해온 B씨는 “콩나물통이 보통 4~5시쯤에 배달되는데 겨울철에는 해가 늦게 뜨기 때문에 콩나물통 분실이 더 자주 발생한다”면서 “두 달에 한 번씩은 분실사고가 발생해 가게 장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콩나물배달업자들이 서로 통을 훔치는 사례가 많지만 동종업계라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광주 시내 콩나물유통업체 35개소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AI 경영난 오리식당 주인 “현수막 설치 허용해 주오”

“통행량 많은 곳 내걸어
안전성 알릴 수 있어야”
복구청장에 하소연 글

오리 식당 주인들이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순천 등 전남 동부권까지 AI(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소비 급감에 따

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오리 식당들이 생겨나면서다. 상당수 오리 식당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위기감도 적지 않다.

광주시 복구청은 4일 민원인 황모씨가 인터넷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차량 이동 및 유통 인구가 많은 광주지역 곳곳에 ‘AI와 상관없는 오리만 유통되며 75도 이상 굽기 때문에 먹는데,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

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오리”라는 글을 올리면서 “복구에서 오리○○○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로, AI 때문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AI와 관련 없는 오리를 유통, 판매하는 데도, (부정적인) 여론 풀이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답변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중(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릴 길이 없다”

고도 썼다.

복구청도 고민중이다. 황씨 등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허용할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밖에 없어 ‘검토중’이라는 의견만 내놓은 형편이다. 플래카드 외에 비랑 끝으로 내몰리는 오리 식당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방안도 없어 무작정 거절하기도 애매한 형편이다.

한편, 과태료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불법 현수막의 면적 등에 따라 8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잘못된 운전·보행습관 개선해야

4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동구장

애인 복지관 앞길에서 주민들이 잘못된 운전·보행 습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항목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동부경찰은 20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뒤 결과를 토대로 교통문화 여건 개선을 위한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급식납품 관련 돈 받은 국회의원 비서관 영장

광주지검 특수부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4일 학교 급식 납품 등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광주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광주 남구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 센터에서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등을 배송할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

목으로 배송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는 선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또 A씨가 청탁 업자에게 “유력 인사에게 돈을 건넸지만 잘 안됐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대화 녹음 파일이 검찰에 건네져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 연루자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벨 장난 도주범 잡아주오” 수사 요청에 경찰 “참 난감하네”



○이른 아침에 누군가 ‘벨튀’(벨 누르고 도망지기) 장난을 해 집에서 깨는 피해를 입었다는 30대 남성의 진정서를 접수받은 경찰이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고민.

○4일 광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N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누군가

벨 누르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어줬으나 아무도 없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벨튀’ 피해를 당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것.

○경찰은 A씨가 ‘벨튀’한 사람을 잡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사건 접수를 받았는데, 담당 경찰은 “누군가 벨 누르고 도망간 것만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대략 난감.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직통, 010-3605-50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1200만원
- 공동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돈 빌려 주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